

현안보고서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개헌

관련 온라인 여론 추이(1/1~9/10) 분석

2026년 9월 11일

'개헌' 관련 온라인 여론 추이(1/1~9/10) 분석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2026.9.11.

■ 요약

3·1 국민투표법 통과 → 4·3 개헌안 발의 → 5·7 표결 불성립 → 7·28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 8·14 청와대 4년 중임제 입장 → 9·9 대통령 '임기 헌법상 제한' 발언으로 이어진 개헌 논의 국면에서 온라인 여론은 **전 채널 부정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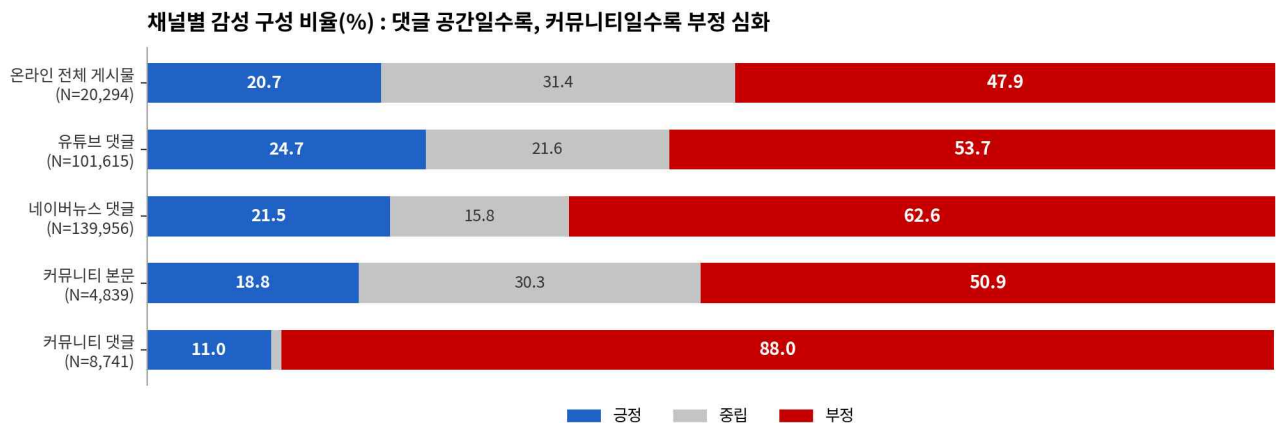
언급량은 6월 978건 → 7월 6,119건(6.3배) → 8월 6,868건으로 기간 내 최고치 경신, 9월은 열흘 만에 2,355건.

최대 특징은 쟁점이 '개헌 찬반'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것인가**'라는 인물 신뢰 문제로 치환된 점. **커뮤니티 댓글 부정 88.9%**(유효 판정), 친여 성향 커뮤니티(클리앙)에서도 부정 83.4%로 진영 방어선이 작동하지 않음.

부정의 무게중심은 '독재' 규탄(9.3%)보다 '**정권심판·선거·지지율**'(19.7%)·'**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14.2%) 등 현실 정치 계산과 진정성 검증에 있음. 찬성측 논거('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 8.8%)는 소수

① 진영 무관 부정 감성 압도적

- **진보·친여 성향 클리앙에서도 부정 83.4%**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채널별로 나누어 긍정·중립·부정 비율을 집계한 결과, 다섯 채널 모두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전체 게시물 20,294건은 **부정 47.87%**, 중립 31.39%, **긍정 20.74%**였다. 유튜브 댓글 101,615건은 **부정 53.68%**, **긍정 24.71%**, 중립 21.61%, 네이버뉴스 댓글 139,956건은 **부정 62.62%**, **긍정 21.54%**, 중립 15.84%로,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부정이 더 짙었다.

커뮤니티는 본문(게시글) 4,839건에서 **부정 50.93%**, 중립 30.29%, **긍정 18.79%**였고, 댓글 8,987건은 중립(0.9%)을 뺀 유효 판정 8,661건 기준으로 **부정 88.9%**, **긍정 11.1%**였다. 댓글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부정적이었던 셈이다.

커뮤니티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보수 성향 에펠키키아 **부정 96.3%**, 중도 성향 엠엘비파크 **89.1%**, 진보·친여 성향 클리앙 **83.4%**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부정이 80%를 넘었다.

② 댓글의 논리 유형(지배 프레임): '이재명 정권 심판' 연계 성격이 지배적

커뮤니티 댓글을 어떤 논리로 개헌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8가지 유형(프레임)으로 나누고, 유형이 식별된 4,523건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했다.

세 커뮤니티 모두에서 1위는 '이재명 정권(또는 개인) 심판·지지율'(전체 19.7%)이었다. 연임 개헌이 가능하냐를 따지기보다, 시도하면 이재명 정권이 심판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지율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는 뜻이다. 이어 '개헌 필요·권력구조' 14.4%,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 14.2%, '헌법 128조·법리 논쟁' 13.8%, '여권 내부·정치 냉소' 10.6% 순이었고, '독재·장기 집권 우려'는 9.3%에 그쳤다.

커뮤니티별 상위 3개 유형은 에팸코리아가 '정권심판·선거·지지율' 25.3%, '헌법 128조·법리 논쟁' 17.5%,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 14.5%, 엠엘비파크가 '정권심판·선거·지지율' 18.7%, '개헌 필요·권력구조' 16.9%, '사법리스크·재판 회피' 13.3%, 클리앙이 '정권심판·선거·지지율' 17.7%,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 16.5%, '헌법 128조·법리 논쟁' 16.2%였다.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진정성' 유형은 친여 성향 클리앙(16.5%)에서 가장 높았다. '사법리스크' 유형은 연임 개헌을 재판 회피와 연결지어 보는 경우인데, 중도 성향 엠엘비파크(13.3%)에서 가장 높았다. 찬성 쪽 논리인 '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은 전체 8.8%에 머물렀다.

③ 많이 나온 단어(상위 키워드): 주제는 '개헌'인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연임'

온라인 전체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연임'(16,489건)이었고, '대통령'(14,706건), '이재명'(11,355건), '국민'(9,516건), '국회'(9,261건), '국민의힘'(8,044건), '헌법'(7,525건), '민주당'(6,737건)이 뒤를 이었다. '의장'·'국회의장'·'조정식'도 11~14위에 올랐다. 분석 주제가 '개헌'인데도 개헌 내용(5·18 전문, 계엄 통제)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국회의장 발언을 가리키는 단어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정 아젠다로 포장된 개헌이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슈로 치환됐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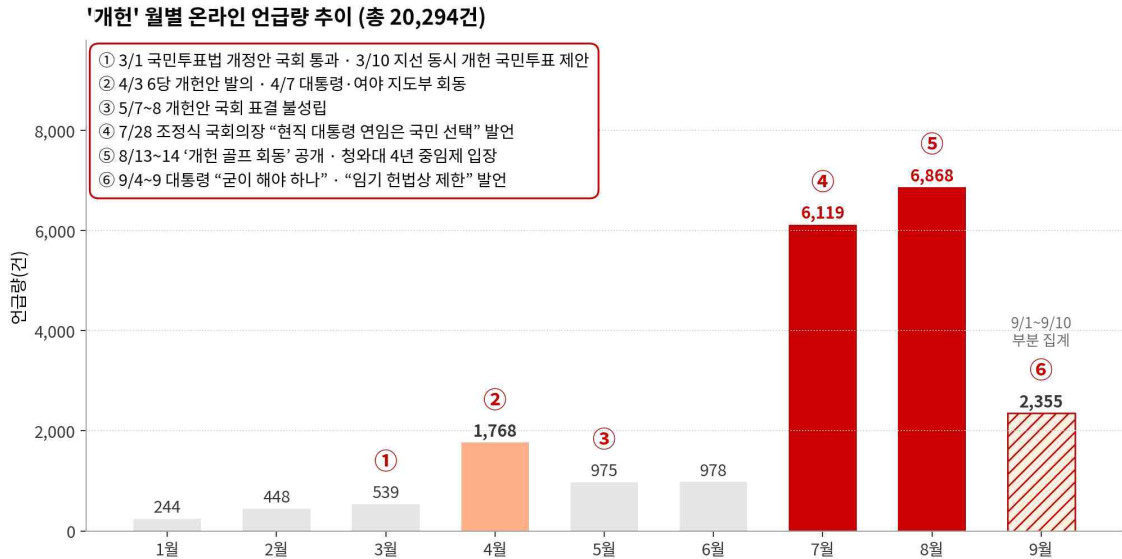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연임'과 '개헌'이 나란히 상위였다. 해당 단어가 들어간 댓글의 비율로 보면 에팸코리아는 '연임' 16.8%, '개헌' 15.0%, '헌법' 8.8%, '이재명' 8.2%, 엠엘비파크는 '개헌' 18.7%, '연임' 11.7%, '이재명' 9.9%, '헌법' 7.8%, 클리앙은 '연임' 23.0%, '대통령' 22.6%, '개헌' 16.7%, '헌법' 11.8% 순이었다.

감성 연관어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부정 연관어는 1위 '논란'(4,345건), 2위 '불가능하다'(2,774건), 3위 '반대하다'(2,595건)였고, 긍정 연관어 1위는 '가능하다'(3,242건)였다. 긍정 1위 '가능하다'와 부정 2위 '불가능하다'가 맞서는 구도로, 온라인 논쟁의 축은 '개헌이 옳은가'가 아니라 '연임 개헌이 실제로 가능한가'였다.

1. 개요

□ 타임라인 및 언급량

○ 데이터 분석 기간(1/1~9/10) 주요 이벤트 및 언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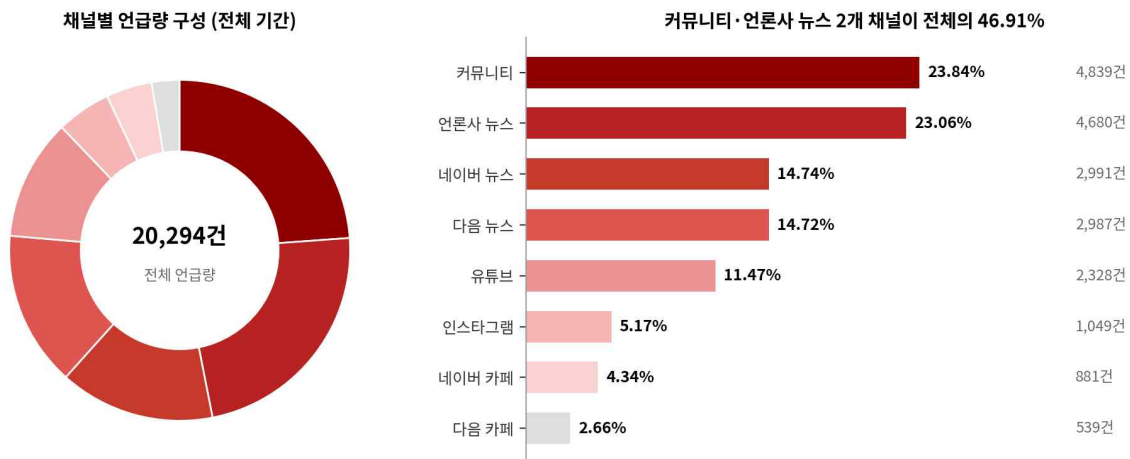
일자	주요 이벤트
3/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의힘 불참) → 개헌 국민투표의 법적 기반 마련
3/10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 → 3/17 개헌특위 구성·4/7 개헌안 발의 시한 제시
3/31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우원식 의장, 개헌안 발의 공식화 → 장동혁 대표 “李 연임용 의심”
4/3	6개 정당 의원 187명 명의 개헌안 발의(5·18·부마 정신 전문 명시, 계엄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 4월 언급량 1,768건으로 1차 급등
4/7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7개월 만). 장동혁 대표 “중임·연임 안 하겠다 선언하라” 건의 → 대통령 “야당이 개헌 저지선 확보한 상태라 연임 개헌 불가능” 답변
5/7~8	개헌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불참으로 명패 178매·의결정족수(191명) 미달 ‘투표 불성립’. 8일 재상정 포기로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6/5	조정식 의원,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276표 중 267표)
7/28	조정식 의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 2027년 여야 합의 개헌 로드맵 제시 → 연임 개헌 논란 촉발, 7월 언급량 6,119건으로 2차 급등
7/29	강훈식 비서실장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 의장 SNS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니다” 유감 표명. 개혁연구원(개혁신당) 조사: 4년 연임제 개헌 반대 55.2%, 현직 대통령 적용 반대 64.7%
8/13~14	7월 국민의힘 중진과의 ‘개헌 골프 회동’ 공개(8/13). 청와대 4년 중임제 공식 입장, 대통령 X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임기 단축 수용”(8/14). 한국갤럽 국정 지지율 44%로 취임 후 최저. 장동혁 대표 “연임은 없다” 공개적으로 밝히라, 정점식 원내대표 “탈출형 개헌”
8/20	리얼미터(8/18~19, 1,017명): 4년 중·연임 개헌 반대 50.9%·찬성 46.0%, 현직 대통령 재출마 허용 반대 61.7%·찬성 34.7% → 8월 언급량 6,868건으로 기간 내 최고치

일자	주요 이벤트
9/4~5	대통령, 청와대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취지 발언(9/5 보도) → 국민의힘 “‘연임 없다’ 네 마디가 그리 어렵나”
9/7~8	김민석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5·18·부마항쟁 전문 수록이 개헌의 출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9/7). 정점식 원내대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9/8). 홍익표 정무수석 “논란 커진 것 유감, 대통령이 분명하게 의사 밝힐 것”
9/9~10	대통령, 파리 동포간담회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9/9 현지시간) → 청와대 “연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9/10) → 장동혁 대표 “말 돌리기”, 정점식 원내대표 “말장난”

※ 언급량은 썬트렌드(주제어 ‘개헌’, 포함어 ‘연임’) 월별 집계, 9월은 1~10일 부분 집계

- 언급량은 개헌안 발의·여야 지도부 회동(4월 1,768건),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 발언(7월 6,119건), ‘개헌 골프 회동’·청와대 4년 중임제 입장(8월 6,868건) 3차례 급등
- 4월(1,768건)을 제외한 1~6월은 월 1,000건 미만의 저강도 국면
→ 7월 들어 전월 대비 6.3배 급증, 8월 기간 내 최고치(6,868건)
→ **9월은 1~10일 열흘 동안 2,355건으로 8월 한 달의 34.3%이므로 월간으로 8월과 비슷한 수준**
- 개헌안 표결 무산(5/7~8) 이후 소강 국면(5월 975건·6월 978건)에 있던 이슈가 조정식 의장 발언으로 재점화 → 사건이 아니라 ‘발언’이 언급량을 견인하는 구조

○ 언급량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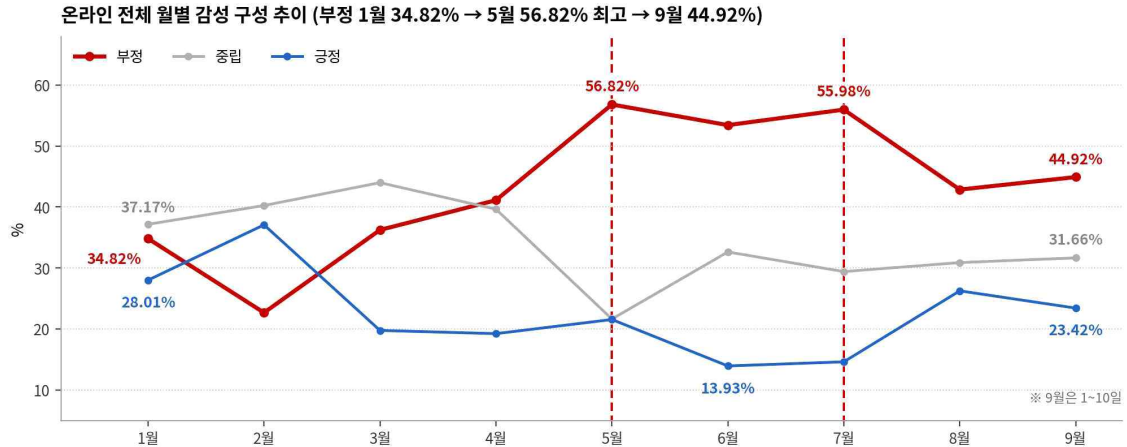
- 커뮤니티(23.84%)·언론사뉴스(23.06%) 2개 채널이 전체의 46.91%, 뉴스 3개 채널(언론사·네이버·다음)이 52.52%
- 커뮤니티 비중은 1월 35.25%·2월 45.31%로 저강도 국면에서 가장 높았으나 7월 21.10%
→ 9월 17.03%로 하락, 뉴스 3개 채널 비중은 1월 47.12% → 9월 66.46%로 상승
- 유튜브 비중은 1월 4.92% → 7월 16.24%(최고) → 8월 11.91%로 조정식 발언 국면에서 3배 이상 확대
- 초기에는 커뮤니티가 선행 논쟁하는 이슈였으나, 7월 이후 뉴스 보도와 영상 매개로 대중 소비형 이슈로 전환

2. 분석결과

□ 온라인 전체 게시물 분석(N=20,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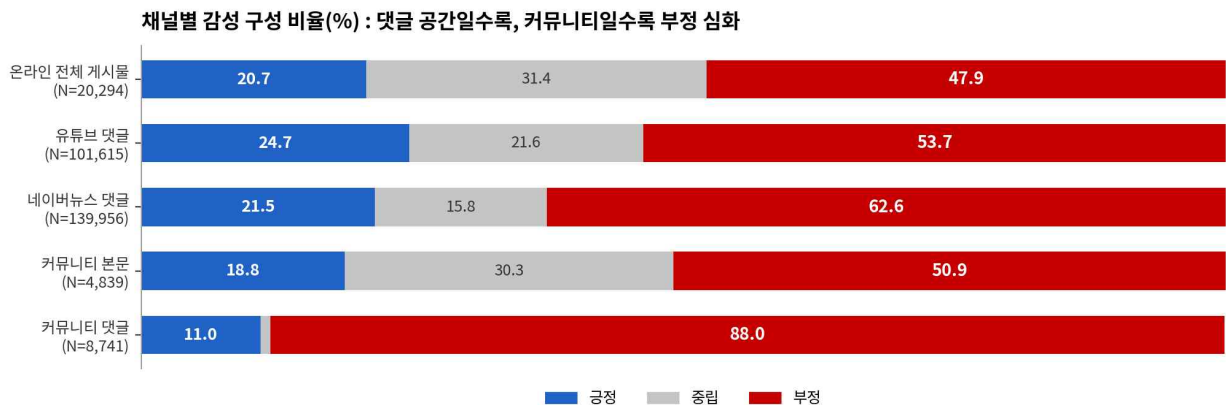
○ 감성구성비율

- 부정 47.87% > 중립 31.39% > 긍정 20.74%



- 부정은 1월 34.82% → 5월 56.82%로 22%p 상승 후 9월 44.92%, 긍정은 1월 28.01% → 6월 13.93%로 14.08%p 하락 후 9월 23.42%
- 부정 고점은 5월(56.82%)·7월(55.98%) → 각각 개헌안 표결 불성립 국면과 조정식 발언 국면. 2월(22.67%)은 국민투표법 처리 국면으로 기간 내 부정 최저
- 8월 부정 42.86%·긍정 26.25%로 긍정이 반등한 것은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입장 표명(8/14)에 대한 지지층 결집 서술이 유입된 결과로 해석되나, 9월 부정 44.92%로 재상승

○ 채널별 감성 구성비율



- 전체 게시물 47.87% < 커뮤니티 본문 50.93% < 유튜브 댓글 53.68% < 네이버뉴스 댓글 62.62% < 커뮤니티 댓글 88.0%
- 발화 공간이 깊어질수록(게시물 → 댓글 → 커뮤니티 댓글) 부정이 짙어지는 관여도 위계가 부동산 정책 분석(8/26)과 동일하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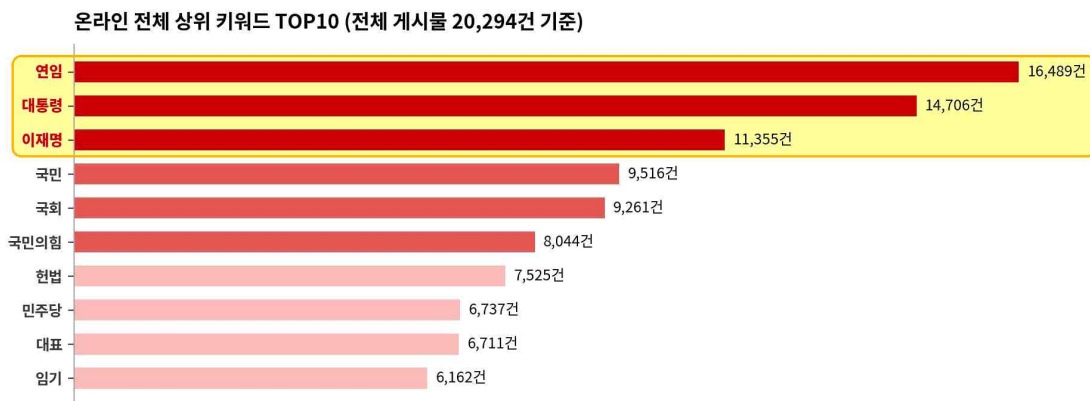
※ 커뮤니티 댓글은 중립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 자체 분류 결과로, 썬트렌드 기준인 나머지 4개 항목과 직접 비교 시 방법론 차이 감안 필요

○ 감성 연관어



- **부정 연관어:** 논란(4,345건)·불가능하다(2,774건)·반대하다(2,595건)·비판(1,482건)·비판하다(1,374건)·오해(912건)·유감(882건)·꿈수(724건)
- **긍정 연관어:** 가능하다(3,242건)·강화하다(1,198건)·가능한(1,183건)·앞서다(1,071건)·공감하다(512건)·진정한(489건)·동의하다(487건)
- 긍정 1위 '가능하다'(3,242건)와 부정 2위 '불가능하다'(2,774건)가 같은 축
→ 온라인 전체 담론의 핵심이 '연임 개헌이 가능한가'라는 실현 가능성 논쟁
- 긍정 어휘가 '가능·강화·앞서다' 등 서술 어휘 위주로 개헌 편익을 설명하는 어휘가 없음

○ 키워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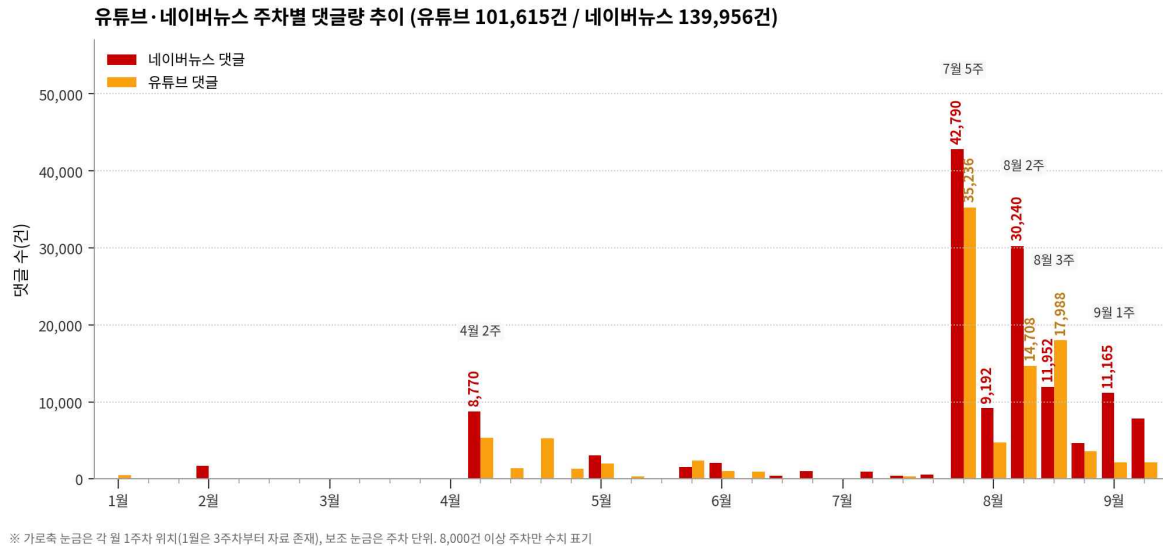


- 연임 16,489건 > 대통령 14,706건 > 이재명 11,355건 > 국민 9,516건 > 국회 9,261건 > 국민의힘 8,044건 > 헌법 7,525건 > 민주당 6,737건 > 대표 6,711건 > 임기 6,162건
- '의장'(5,944건)·'국회의장'(5,626건)·'조정식'(5,250건)이 11~14위, '장동혁'(4,578건) 18위, '현직대통령'(3,444건) 27위
→ 개헌 논의가 국회의장 발언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축으로 소비
- 주제어가 '개헌'임에도 최상위 키워드가 '연임·대통령·이재명'
→ 개헌 내용(5·18 전문·계엄 통제)이 아니라 인물의 연임 여부가 담론의 중심

□ 유튜브 영상·네이버뉴스 댓글 분석(N=241,571)

※ 유튜브: 영상 200개의 댓글 101,615건 / 네이버뉴스: 언론사 기사 200개의 댓글 139,956건 (썸트렌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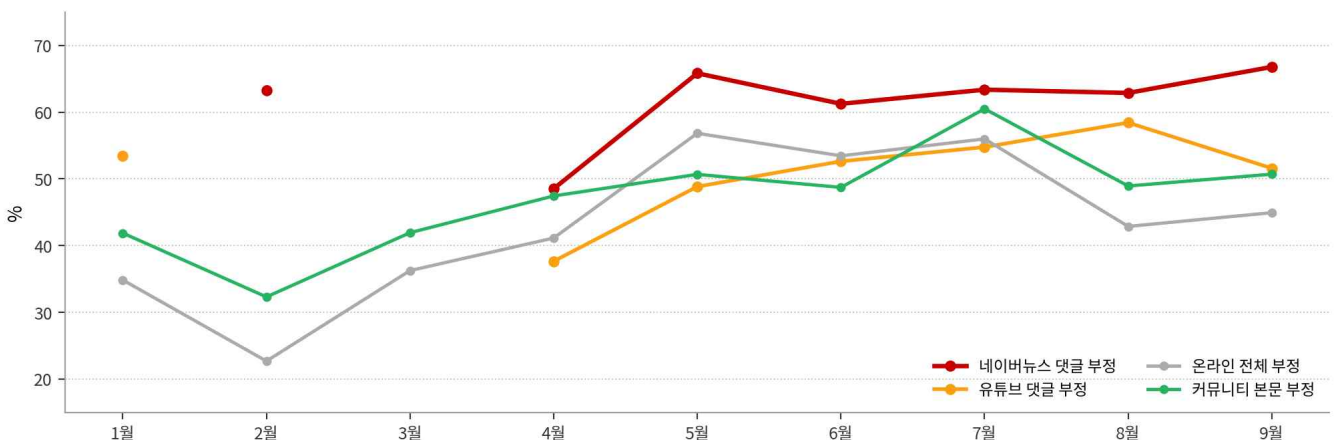
○ 주차별 댓글량 추이



- 두 채널 모두 7월 5주차(7/27~)가 최고치: 네이버뉴스 42,790건(전체의 30.6%), 유튜브 35,236건(전체의 34.7%) → 조정식 발언 한 주에 두 채널 댓글의 3분의 1이 집중
- 8월 2주차(8/10~16, 개헌 골프 회동·4년 중임제 입장) 네이버뉴스 30,240건·유튜브 14,708건, 8월 3주차 유튜브 17,988건
→ 유튜브는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 한 주 더 지속
- 9월 1주차 네이버뉴스 11,165건, 2주차(9/7~10 부분) 7,865건
→ '굳이 해야 하나.'임기 헌법상 제한' 발언이 뉴스 댓글을 재점화
- 4월 2주차(개헌안 발의·여야 회동)에도 네이버뉴스 8,770건·유튜브 5,336건이 있었으나 7월 이후 규모의 5분의 1 수준 → 개헌 절차보다 '연임' 발언이 반응을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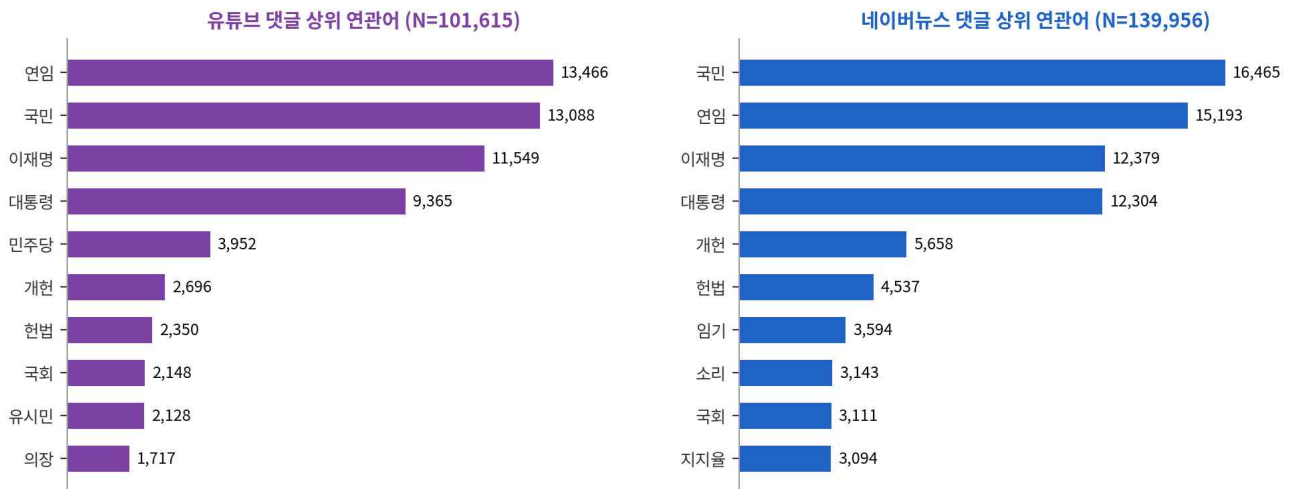
○ 월간 부정 비율 추이

채널별 월간 부정 비율 추이 (댓글 데이터가 없는 달은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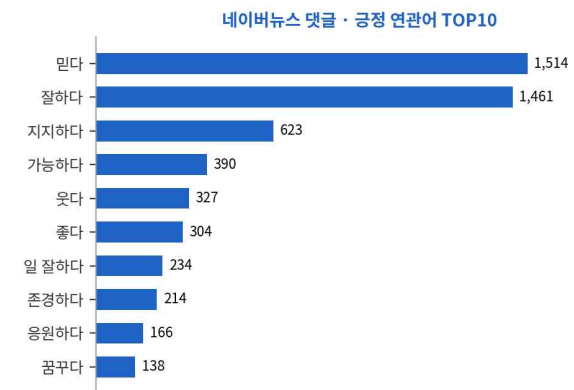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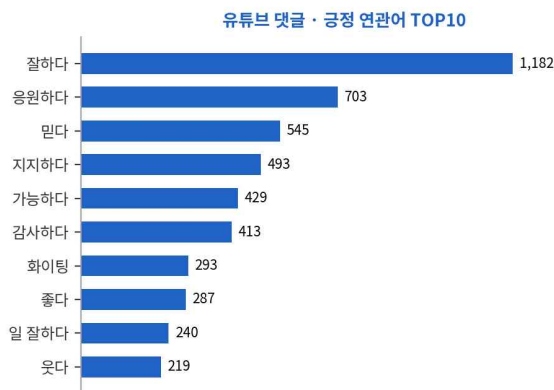
- 네이버뉴스 댓글은 자료가 있는 전 기간 48~67% 부정으로 가장 높고, 9월(66.77%)이 최고치
→ 대통령의 '임기 헌법상 제한' 발언 직후 뉴스 댓글 부정이 오히려 상승
- 유튜브 댓글은 4월 37.64%에서 8월 58.42%까지 매월 상승 후 9월 51.58%로 소폭 하락, 긍정은 9월 32.37%로 반등 → 유튜브는 국면 반응형
- 뉴스 댓글은 상시 고정된 부정층, 유튜브는 발언 국면마다 진폭이 커지는 성격 차이가 부동산 정책 분석과 동일

○ 댓글 상위 연관어



- 유튜브 1위 '연임'(13,466건)·네이버뉴스 1위 '국민'(16,465건), 두 채널 모두 '연임·국민·이재명·대통령'이 상위 4개
→ '국민 선택'이라는 조정식 발언의 표현 자체가 논쟁 언어로 정착
- 유튜브는 '유시민'(2,128건, 9위)·'정청래'(1,490건)·'김민석'(1,219건)·'독재'(1,073건)·'탄핵'(952건)·'국민투표'(927건)·'부정선거'(720건)가 상위
- 네이버뉴스는 '지지율'(3,094건)·'장동혁'(2,614건)·'재판'(2,432건)·'독재'(1,635건)·'범죄자'(1,600건)·'탄핵'(1,515건)·'도둑질'(1,238건)·'골프'(1,101건)가 상위
- 유튜브는 여권 인물 갈등(유시민·정청래·김민석)과 국민투표 정당성, 뉴스 댓글은 지지율·재판·도둑질 발언 등 대통령 개인을 향한 공방으로 무게중심이 다름

○ 감성 연관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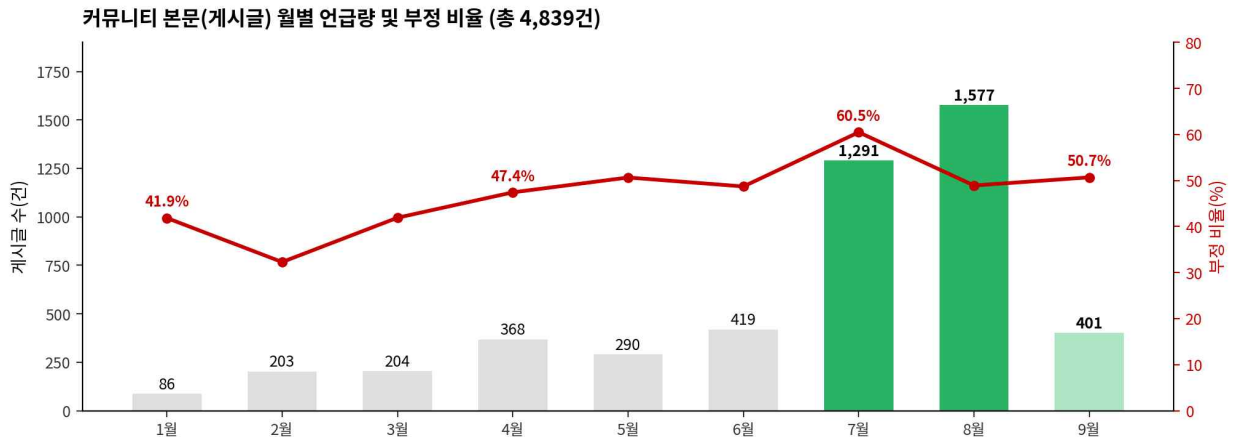
- 두 채널 모두 부정 1위가 '안되다'(유튜브 1,588건 / 뉴스 1,767건)이고 '안하다·못하다·반대하다' 등 거부형 어휘가 상위 → 찬반 토론이 아니라 '불가'를 통보하는 언어
- '부정선거'가 유튜브 2위(720건)·뉴스 4위(737건)
 - 개헌 국민투표 자체의 신뢰 문제로 논쟁이 확장되는 조짐
- 네이버뉴스 부정 5위 '믿지못하다'(582건)·6위 '꿈수'(576건)
 - 뉴스 댓글의 부정은 제도 반대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
- 긍정 연관어는 양 채널 모두 '잘하다·응원하다·믿다·지지하다·화이팅' 등 인물 지지 어휘가 상위 독점 → 중임제의 편익(책임정치·중간평가)을 설명하는 어휘 부재
- 종합하면 부정은 '불가 통보 + 진정성 불신', 긍정은 '인물 지지'로 각각 고착
 - 권력구조 개편의 효과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양측 모두에서 형성되지 않은 상태

□ 커뮤니티 게시물 분석(N=4,839)

※ 썬트렌드 커뮤니티 채널 게시물 기준(애플코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외 다수 커뮤니티 포함). 감성은 썬트렌드 3분류

○ 월별 언급량 및 감성구성비율

- **부정 50.93%** > 중립 30.29% > **긍정 18.79%** (전체 기간)



- 게시글은 6월 419건 → 7월 1,291건 → 8월 1,577건(최고) → 9월(1~10일) 401건. 부정 비율은 7월 60.49%로 최고, 4월(47.43%)·8월(48.92%)·9월(50.69%)도 절반 안팎
- 커뮤니티 본문은 1~2월에도 86건·203건으로 전체 언급량의 35~45%를 차지 → 뉴스가 다루기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연임 가능 여부'가 논쟁이 된 이슈

○ 연관어 및 감성 연관어



- 연관어 상위: 연임 3,843건 > 대통령 2,226건 > 이재명 1,622건 > 국민 993건 > 국회 807건 > 헌법 805건 > 민주당 731건 > 임기 639건 > 의장 534건 > 조정식 496건
- '지지율'(293건)·'검찰'(289건)·'김민석'(287건)·'총선'(258건)·'장동혁'(254건)이 20~30위권 → 게시물 단계에서 이미 지지율·총선과 결합
- 감성 연관어: **부정** 논란(243건)·반대하다(199건)·불가능하다(159건)·안되다(139건)·의심(63건)·꼼수(49건) / **긍정** 가능하다(279건)·가능한(67건)·강화하다(52건)·지지하다(49건)
- 온라인 전체와 마찬가지로 긍정 1위 '가능하다'와 부정 '불가능하다·불가능'(244건)이 대칭 → 커뮤니티 게시글의 논쟁 속도 실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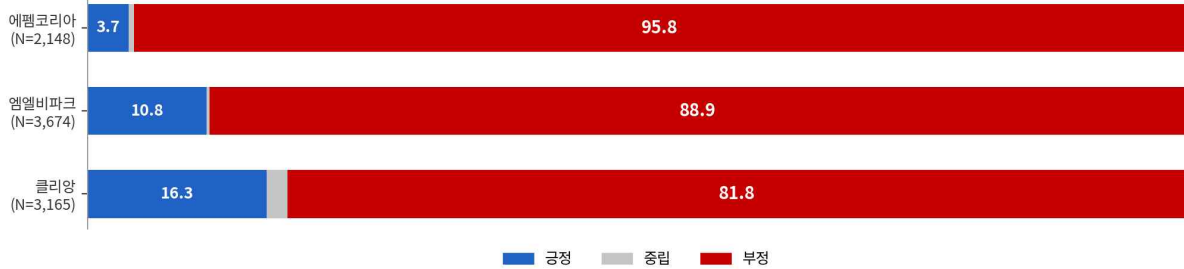
□ 커뮤니티 댓글 분석(N=8,987)

※ 분석 대상: 에펠큐리아 2,148건(243개 게시글)·엠엘비파크 3,674건(345개)·클리앙 3,165건(155개), 총 743개 게시글의 댓글 8,987건.

○ 감성구성비율

- **부정 88.9% > 긍정 11.1%** (유효 판정 8,661건 기준, 중립 0.9%)

커뮤니티별 댓글 감성 구성(%) : 중립 최소화 원칙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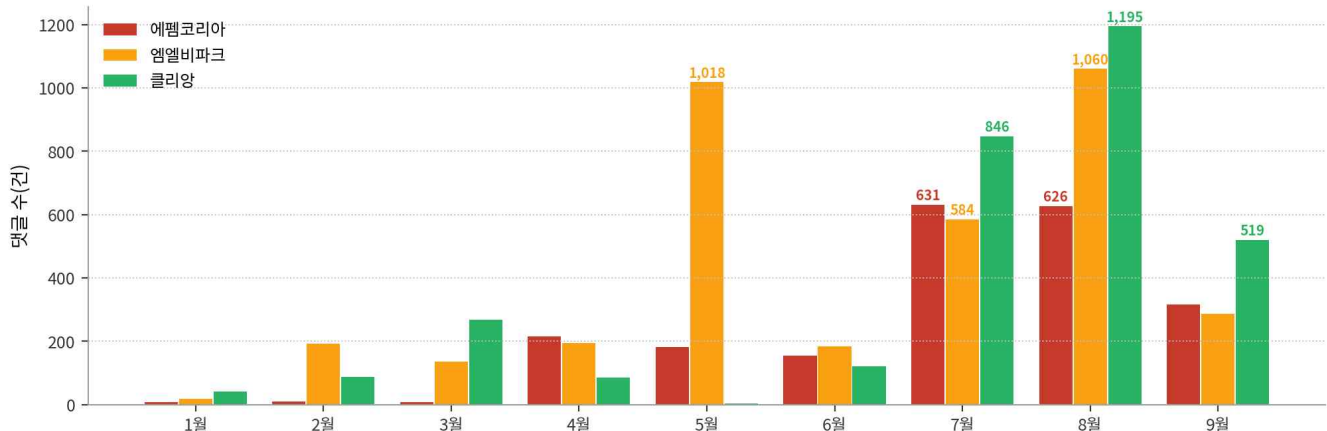
커뮤니티	전체 댓글	유효 판정	부정	긍정
에펠큐리아	2,148	2,120	96.3%	3.7%
엠엘비파크	3,674	3,497	89.1%	10.9%
클리앙	3,165	3,044	83.4%	16.6%
합계	8,987	8,661	88.9%	11.1%

※ 그래프는 중립 포함 유효 댓글 기준, 표의 긍·부정 수치는 유효 판정(긍·부정) 기준. 긍정 = 대통령·정부여당 우호(연임·중임 개헌 지지 또는 연임 의혹 부인·야당 공세 비판), 부정 = 대통령·정부여당 비판(연임 개헌 반대·의혹 제기·독재 프레임·선언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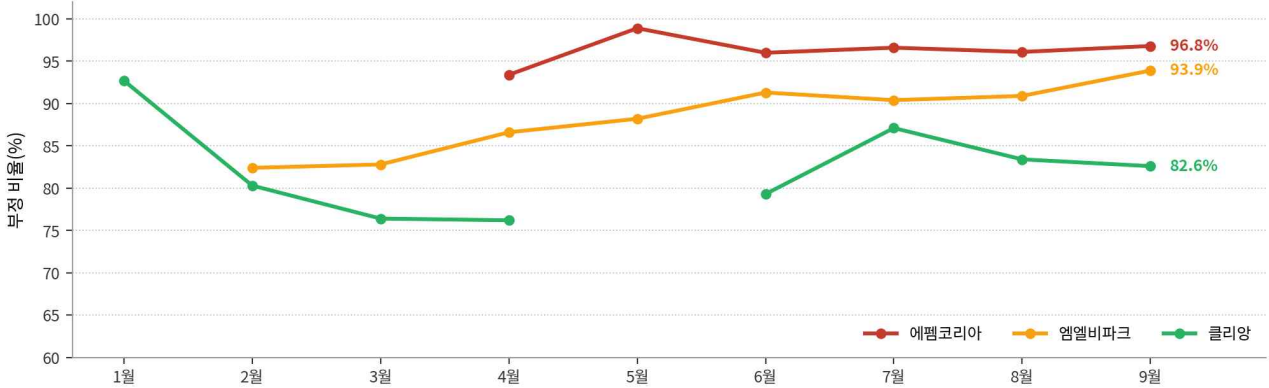
- 보수 성향(에펠큐리아 96.3%)뿐 아니라 중도(엠엘비파크 89.1%)·진보 성향(클리앙 83.4%)에서도 부정이 80%를 넘어 진영에 따른 여론 분화가 나타나지 않음
- 클리앙의 긍정 16.6%도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니 야당의 억지"라는 방어형이 다수이고, 연임 자체를 바라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유형은 소수
- 클리앙 부정 댓글의 논거는 '독재' 규탄이 아니라 "연임 안 한다고 못 박으라"(선언 요구)·"128조 2항이 있는데 왜 말을 돌리나"(법리)
→ 지지층 내부의 요구가 야당의 요구와 동일한 형태

○ 월간 댓글량 및 부정 비율 추이

커뮤니티별 월간 댓글량 추이 (총 8,987건, 9월은 1~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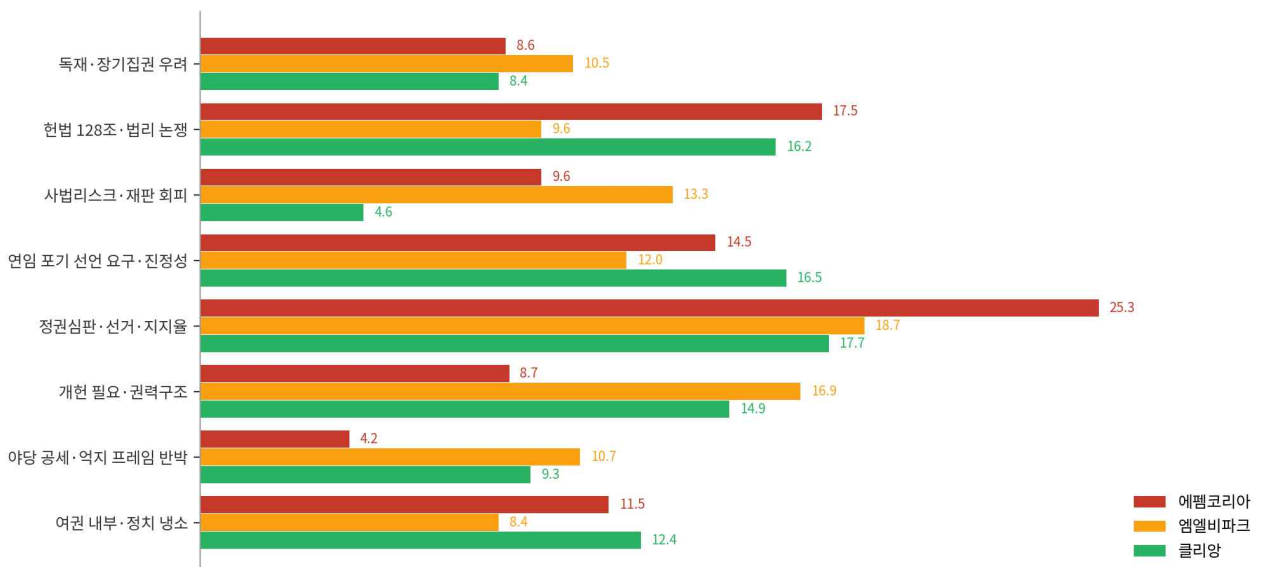
커뮤니티별 월간 부정 비율 추이 (유효 판정 기준, 댓글 20건 미만인 달은 공백)



- 댓글 8,987건 중 7/27 이후가 5,856건(65.2%) → 조정식 발언 이후 6주에 커뮤니티 논쟁의 3분의 2가 집중. 7/28~29 이틀간 1,809건, 8/14~15 1,230건, 9/9~10 705건
- 클리앙 댓글량은 6월 121건 → 7월 846건 → 8월 1,195건(세 커뮤니티 중 최다) → 9월 열흘 519건 → 친여 커뮤니티의 논쟁량이 가장 크게 증가
- 엠엘비파크는 5월 1,018건(개헌안 표결 국면 5/7~9 스레드 집중)과 8월 1,060건의 두 고점, 부정 비율은 2월 82.4% → 9월 93.9%로 상승 추세
- 에펠큐리아는 전 기간 부정 93~99%로 포화 상태, 클리앙은 3~4월 76% 선에서 7월 87.1%로 올라선 뒤 8~9월 83% 선 유지
→ 여권의 세 차례 해명(7/29·8/14·9/9)에도 친여 공간의 부정이 되돌아오지 않음
- 부정 여론 확대의 실질 동력은 보수 커뮤니티가 아니라 **중도·친여 커뮤니티**

○ 댓글 프레임 분석

커뮤니티별 댓글 프레임 분포(% , 프레임 식별 4,523건 기준)



프레임	전체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클리앙
정권심판·선거·지지율	19.7%	25.3%	18.7%	17.7%
개헌 필요·권력구조	14.4%	8.7%	16.9%	14.9%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	14.2%	14.5%	12.0%	16.5%
헌법 128조·법리 논쟁	13.8%	17.5%	9.6%	16.2%
여권 내부·정치 냉소	10.6%	11.5%	8.4%	12.4%
독재·장기집권 우려	9.3%	8.6%	10.5%	8.4%
사법리스크·재판 회피	9.2%	9.6%	13.3%	4.6%
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 (찬성측)	8.8%	4.2%	10.7%	9.3%

※ 8개 프레임 사전에 구축해 댓글별 최고 점수 프레임 1개를 부여. 프레임 식별 4,523건(식별률 51.7%) 기준, 단문 댓글은 식별에서 제외.
'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은 찬성측 논거로 긍정 판정 비율 66.1%, 나머지 7개 프레임은 부정 판정 86.7~97.6%

- 전 커뮤니티 공통 1위가 '정권심판·선거·지지율'(17.7~25.3%)
→ 연임 개헌이 '가능하냐'보다 '시도하면 지지율총선이 어떻게 되느냐'로 계산하는 언어가 지배
-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은 클리앙에서 16.5%로 최고
→ 친여 공간이 오히려 대통령의 명시적 선언을 가장 강하게 요구
- '헌법 128조·법리 논쟁'은 에펨코리아 17.5%·클리앙 16.2%로 양극 커뮤니티에서 높음
→ '개헌 2회로 우회 가능한가'를 놓고 보수는 의심, 진보는 방어하는 동일 쟁점
- '사법리스크·재판 회피'는 엠엘비파크 13.3%로 최고(클리앙 4.6%)
→ 중도 공간에서는 연임 개헌이 공소취소·재판 재개 문제와 결합
- '독재·장기집권 우려'는 전 커뮤니티 8.4~10.5%에 그침
→ 부정 여론의 주된 언어는 이념 규탄이 아니라 진정성·법리·선거 계산
- 찬성측에 해당하는 '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은 클리앙에 9.3%·엠엘비파크 10.7%에 그침

○ 프레임별 대표 댓글

- 정권심판·선거·지지율
 - "지지율 30프로대에서 뭘 밀어부쳐요 욕이나 쳐먹고 국민투표해도 부결되지" (엠엘비파크)
 - "개헌 찬성한 국힘의원은 정치인생 끝나는거지 ㅇㅇ 지금 지지도 보면 만약에 국회통과한다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날 가능성도 큼" (에펨코리아)
 - "국민들이 무지해보이는 들쭉 같아도 우리나라 국민은 임계점 넘으면 결국 철저히 정권 버리더라고요.." (클리앙)
- 개헌 필요·권력구조
 - "개헌 하더라도 4년중임제 딱 여기까지만 하지. 재명이는 못 해먹게 할겁니다." (엠엘비파크)
 -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중임제4년만 되어도 큰 성과입니다." (클리앙)
 - "연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국힘 합당 => 분권형 대통령제 => 내각제 => 봉건세습제 이렇게 흘러갈 거라서 코어층이 이반하고 있는 거죠" (클리앙)

- 연임 포기 선언 요구·진정성

- "'개헌해도 연임 안한다' 똑바로 말 안하나" (에편코리아)
-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 말이 저는 걸립니다. 아예 연임할 생각 없다. 대놓고 선포하시는게 답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개헌 시도할수록 개헌=연임 프레임 붙을겁니다." (클리앙)
- "대놓고 하고싶다는말은 못하겠고 일부러 말돌린거지 즉 하고싶다는거" (에편코리아)

- 헌법 128조·법리 논쟁

- "연임 불가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못박아놔어요. 128조 2항 찾아보세요. 민주화 운동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클리앙)
- "재들 논리는 헌법 조항 중에 개헌 시 개헌 사항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라는 조항 자체를 개헌할 때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에편코리아)
- "독재국가되는거죠 원칙적으로도 불가고 개헌을 2번해야됨" (엠엘비파크)

- 여권 내부·정치 냉소

- "절대 연임은 안돼요. 그거 동의해줄 국회의원 얼마 없어요. 당장 김민석만 해도 당대표 되고 나면 다음 대통령 자기가 될꺼라고 생각할 텐데 이재명 연임을 정치 인생걸고 추진 할리가 없죠" (엠엘비파크)
- "정권 초반 지지율 좋을 때 농담으로 던지던 말인데...;; 이걸 설마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구요." (클리앙)
- "늘 과잉 충성하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이렇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득될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 좋아할일도 아닌데..." (클리앙)

- 독재·장기집권 우려

- "현직 대통령도 연임에 해당되게 개헌 할려고 하면 안 받아주지 사실상 유신 헌법 같은 친위 쿠데탄데" (에편코리아)
- "안되죠. 헌법 개헌해서 연임하면 독재자" (엠엘비파크)
- "스마트한 독재자가 떠오르네요.. 미쳤나요?" (클리앙)

- 사법리스크·재판 회피

- "감옥안가는게 최종목표죠. 지가 지은 죄는 지가 제일 잘 아니까" (엠엘비파크)
- "결국은 본인이 언급해야죠. 공소취소도 안한다. 연임도 안한다. 그러면 끝날 일" (클리앙)
- "그거 헌법상 불소추특권때매 중단된거라 야당이 총선 개헌선까지 먹어서 개헌하지 않는이상 불가능" (에편코리아)

- 야당 공세·역지 프레임 반박(찬성측)

-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근거 없는 비판에 일일이 대응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더 이상하네요. 국힘이 동의 해 줄까요?" (클리앙)
- "박정희같은 말도안되는 예말고 지금 이시국에 어떻게 저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씀해보시죠." (클리앙)
- "지방선거 엄청 쫄리나 ㅋㅋㅋㅋ 국힘이 백석이 넘어 그런 개헌이 될리가 없는데 밑밥은 국힘이 까네 ㅋㅋㅋ" (엠엘비파크)

○ 키워드 분석결과 (댓글 단위 출현율)

커뮤니티별 상위 키워드 (댓글 단위 출현율, %)



에phem코리아		엠엘비파크		클리앙	
연임	16.8%	개헌	18.7%	연임	23.0%
개헌	15.0%	연임	11.7%	대통령	22.6%
헌법	8.8%	이재명	9.9%	개헌	16.7%
이재명	8.2%	헌법	7.8%	헌법	11.8%
대통령	7.6%	반대	6.4%	이재명	10.6%
민주당	4.1%	국민의힘	6.2%	중임	5.5%
찬성	3.6%	대통령	6.2%	내각제	5.2%
현직	3.3%	민주당	6.1%	민주당	4.8%
반대	2.9%	독재	3.6%	국회	4.3%
국민의힘	2.8%	찬성	3.4%	국민의힘	4.0%

※ 형태소 분석(Kiwi) 기반 명사 추출 + 복합어 병합 + 은어 정규화(국힘→국민의힘, 찌→이재명 등). 수치는 해당 단어가 출현한 댓글의 비율(문서빈도)

- 클리앙은 '연임'(23.0%)·'대통령'(22.6%)이 압도적이고 '중임'(5.5%)·'내각제'(5.2%)·'국회의장'(3.8%)이 상위
→ 연임과 중임의 차이, 내각제 전환 의혹 등 제도 어휘로 검증하는 논쟁
- 엠엘비파크는 '반대'(6.4%)·'국민의힘'(6.2%)·'독재'(3.6%)·'계엄'(2.9%)이 상위
→ 개헌안 표결 국면(5월)의 찬반 공방과 계엄·독재 대비 언어가 결합
- 에phem코리아는 '찬성'(3.6%)·'현직'(3.3%)·'지지율'(2.4%)이 상위
→ 연임 찬성 여론조사 결과와 현직 적용 여부를 지지율과 연결해 소비
- 세 커뮤니티 모두 '헌법'이 4위 이내(7.8~11.8%)
→ 커뮤니티 논쟁은 정치 공방보다 헌법 조문 해석에 집중되는 특징

※ 분석 개요

- 분석 이슈: '개헌' 관련 온라인 여론 (※분석 키워드: 개헌)
- 분석 데이터
 - ① 온라인 전체 게시물 20,294건
(커뮤니티·네이버카페·다음카페·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뉴스·다음뉴스·언론사뉴스)
 - ② 유튜브 영상 댓글 101,615건
 - ③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 139,956건
 - ④ 커뮤니티 본문(게시글) 4,839건
 - ⑤ 커뮤니티 댓글 8,987건(에펠폰코리아 2,148건·엠엘비파크 3,674건·클리앙 3,165건)
- 데이터 수집 기간: 2026년 1월 1일 ~ 9월 10일
- 분석 대상 커뮤니티 성격
 - 에펠폰코리아: 20~30대 남성 중심 보수 성향 대형 커뮤니티(26년 9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 1억 5,700만 명)
 - 엠엘비파크: 30~40대 남성 중심, 중도 성향 대형 커뮤니티(26년 9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 5,000만 명)
 - 클리앙: 40~50대 남성 중심, 진보 성향 대형 커뮤니티(26년 9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 3,000만 명)
 - 세 커뮤니티는 각각 보수, 중도, 진보층 온라인 여론의 핵심 기반으로 중점 관찰 대상
- 분석 방법
 - 감성분석: 온라인 전체 게시물·유튜브 댓글·뉴스 댓글 감성은 썬트렌드 기준, 커뮤니티 댓글은 중립 최소화 원칙에 기반해 긍·부정 감성분류
 - 반어·조롱·욕설은 문맥을 해석해 실질 긍·부정 태도로 환원
 - 4단계 혼합 분류: ① 규칙(어휘사전) → ② 머신러닝 자기학습 → ③ 대상·정서 규칙 → ④ 작성자 성향 전파. 커뮤니티는 원 게시물(스레드) 단위 전체 맥락을 파악해 스레드 지배 성향을 잔여 댓글에 전파(중립 최소화)
 - 프레임분석: 8개 프레임 사전을 구축, 댓글별 최고 점수 프레임 1개를 대표 프레임으로 부여
 - 키워드분석: 형태소 분석(Kiwi) 기반 명사 추출 + 복합어 병합, 댓글 단위 출현율(문서빈도) 산출

※ 분석의 한계

- 커뮤니티 댓글 감성분석은 중립 최소화 원칙에 따라 반어·조롱을 긍·부정으로 환원한 결과로, 통상 기준보다 부정 비율이 높게 산출됨. 자기학습 단계의 교차검증 정확도는 0.848이며, 육안 검증 결과 긍정 판정 쪽 오분류(반어를 지지로 읽는 사례)가 부정 쪽보다 많음
- 데이터 수집 대상 커뮤니티 3곳은 남성·수도권 이용자 비중이 높아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하지 않으며, 원 게시물(스레드) 맥락 전파 과정에서 스레드 내 소수 반론이 지배 성향으로 흡수됐을 가능성 존재함
- 프레임 비율은 식별 댓글(51.7%) 기준이며, 단문 댓글은 식별에서 제외됨
- 분석 키워드가 '개헌'+ '연임'으로, '중임제'만 언급한 게시물은 수집에서 누락됐을 수 있음. 9월은 1~10일 부분 집계
- 유튜브·네이버뉴스 댓글은 이슈 관련 주요 영상·기사 표본 기반으로 전체 모집단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 여론은 정량 여론조사와 병행 해석 필요